

소형교회 은퇴목회자의 삶과 딜레마에 대한 질적연구

이현철

(고신대학교, 부교수, 기독교교육)

-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 II. 선행연구와의 비교
- III. 연구방법
- IV. 연구 결과: 소형교회 은퇴목회자의 삶과 딜레마
- V. 요약 및 결론: 정책적 시사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 내 소형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과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그들의 삶과 사역의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지향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여러 지역 교회의 은퇴목회자들(목사 아내 포함)과 소형교회의 지도자 중에 핵심적인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질적자료 분석방법은 CAQDAS(Computer-Aid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주요한 코딩전략으로는 전체적 코딩(holistic coding)을 활용하여 은퇴목회자들의 삶과 딜레마와 관련된 종합적인 맥락과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질적자료분석을 통하여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삶과 딜레마와 관련된 5가지 차원의 주요한 주제와 영역들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1) 시간 활용과 무료한 일상생활: “시간에 대한 문제가 힘들어요”, 2)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내가 수급자로 있으니깐, 정부가 39만원 줍니다”, 3) 목사의 정체성: “유지와 갈등 사이에서”, 4) 체계적인 은퇴 준비의 한계와 어려움: “교회의 생존과 존폐 앞에서 나의 은퇴준비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5) 은퇴 후 출석 교회와의 관계성: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출석해야지요” 이다. 해당 주제와 영역들은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각 교단 및 체계 교회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및 준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키워드: 한국교회, 소형교회, 은퇴목회자, 삶, 딜레마, 실천신학

논문투고일 2021.01.06. / 심사완료일 2021.02.26. / 게재확정일 2021.03.02.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은퇴자들에 대한 정책과 노후생활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퇴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를 반증해주는 전국에 분포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107개에 이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후 준비 상담은 2012년 5만 3123건에서 2015년에는 6만 700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현재 그 증가 폭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러한 상황은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노후 준비와 관련된 상황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논의가 어색하거나 무리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 노후 준비와 관련된 사항이 목회자들에게 적용되어 논의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목회자들의 노후와 관련된 준비는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실제적인 맥락에서 대다수 목회자는 은퇴 후 노후에 있어 안정적인 사항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별히 교회의 양극화로 인해 목회자들의 은퇴 후 삶에 있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대형 교회 은퇴목회자와 작은 교회의 은퇴목회자 간에 커다란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은퇴 자금은커녕 자신이 거주해야 할 주택마저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다양한 아픔들을 상상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실천신학계는 소형교회 은퇴 목회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어떠한 딜레마가 있는가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거나 논의를 깊이 있게 다루어내지 못하였다. 단순히 목회자의 은금재단과 관련된 문제들과 일부 소수의 목회자들의 과도한 은퇴 자금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을 뿐 대다수의 '평범한 은퇴목회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교회 내 은퇴목회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35122)

1 이소정,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16), 75-76.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은퇴목회자들에 대한 현장성 짙은 연구와 분석은 그들을 위한 정책 도출과 발전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삶과 딜레마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재발견이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현재 은퇴를 한 목회자 세대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의 은퇴한 목회자들에 대한 가치 인식은 성공한 중대형교회 목회자의 그것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삶과 딜레마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회 내 은퇴목회자들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재발견을 이룰 것이며, 나아가 은퇴한 목회자들의 노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삶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분석의 필요성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특정한 업적이 있거나 대형교회의 성공적인 목회 배경을 바탕으로 활약한 은퇴목회자들의 신앙적 전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아래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는 평범한 은퇴목회자들의 일상적 삶에 기반을 둔 현실적인 모습들을 외면할 수 있으며, 업적 중심의 사항들만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평범한 은퇴목회자의 삶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의미와 딜레마들을 살펴봄으로써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및 딜레마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방안 및 전략 제시를 위함이다. 현장에 기반을 둔 삶과 딜레마에 관한 연구는 한국교회 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형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실제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의 신앙 및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나아가 교회 전반의 은퇴목회자들에 대한 인식에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은퇴목회자와 일반교회(성도) 간의 이해도 증진의 필요성

이다.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목회자와 교회(성도) 간의 갈등은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² 은퇴목회자들의 삶과 딜레마에 대한 현장지향적인 분석과 연구는 일반교회(성도)로 하여금 은퇴목회자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폭을 실제적으로 넓혀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목회자 인식과 교회 사역을 위한 선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많은 교회가 소위 ‘목회자의 은퇴’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이는 매우 시급하게 탐색해야 할 요소일 것이다.

전술한 내용과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론 중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삶과 딜레마를 현장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당 과정을 바탕으로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이며, 어떠한 삶의 요소들이 그들의 딜레마를 구성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은퇴목회자들의 삶의 문제와 그들의 기능적인 은퇴 이후의 사역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II. 선행연구와의 비교

은퇴목회자와 관련된 개념은 일반적으로 은퇴 연령 70세를 기준으로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리교단의 경우(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74조) 70세 정년제에 65세에 자원은퇴제를 두고 있다.³ 또한 은퇴목사와 관련하여 원로목사의 개념도 존재하고 있는데, 한 개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은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교회에서 추대절차를 따라 공동의회에서 추대 결의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⁴ 해당 개념에 준하여 은퇴목회자들과 관련된

2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독일보> 2018년 2월 10일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 (접속일: 2021년 2월 23일 검색).

3 손의성, “은퇴목회자의 우울과 고독감과 대처자원 관계 연구”, 『교회사회사업』 22(2013), 12.

4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1), 272.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그들의 심리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급재단 관련 포함)을 고려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심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손의성은 은퇴목회자의 우울, 고독감, 대처자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65세 이상 은퇴목회자 140명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노후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은퇴목회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들이 요구됨을 밝혀주었다.⁵ 또한, 서정국·김미경도 은퇴목사의 갈등관리유형, 삶의 만족도 등이 갈등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은퇴목사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해주었다. 이를 통해 은퇴 목사의 갈등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관리유형과 삶의 만족도가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은퇴목사의 갈등감소를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해주었다.⁶

한편 경제적 측면(은급재단 관련 포함)을 고려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수준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대규모의 연구를 수행한 변은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변은미는 각 교단의 은퇴목회자 65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은퇴목회자들의 경제생활, 가족관계 및 가정활동, 여가 및 봉사활동, 일상생활과 건강, 교단에 대한 복지 정책 및 요구 인식 등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기초조사를 수행해주었다.⁷ 변은미의 연구는 은퇴목회자들의 상황과 실태에 대하여 주요한 흐름들을 파악하게 해주는 의미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또한 강명환은 목회자의 은급제도 모형개발을 위한 분석을 수행해주었는데, 그는 국내 7개 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감리회, 예성, 기성, 예장고신 등)의 은급제도를 분석하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목회자의 은급제도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은급제도 도입과 수행을 위한 절차와 범위에 대하여 제안해주었다.⁸ 그리고 박근수 역시 65세 은퇴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

5 손의성, “은퇴목회자의 우울과 고독감과 대처자원 관계 연구”, 『교회사회사업』 22(2013), 7-42.

6 서정국·김미경, “은퇴목사의 갈등관리유형과 삶의 만족도가 갈등감소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1(2013), 92-120.

7 변은미, “은퇴목회자 노후생활에 관한 연구: 신앙, 여가, 경제,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천안: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8 강명환, “목회자의 은급제도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측)목회자를 중심으로,” (천안: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으며, 해당 결과 은퇴목회자들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적 차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주었으며, 은퇴목회자의 은퇴 후 소득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주었다.⁹ 그 외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대부분이 설문통계에 기반을 둔 접근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동향은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삶과 딜레마와 같은 심층적인 차원의 내용을 학계에서 다루어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수행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은퇴목회자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흥미로운 선행연구 1편이 조사되었는데 침례교 은퇴목회자를 중심으로 수행된 권지성의 연구이다. 권지성의 연구는 침례교 은퇴목회자들의 생활경험을 이해하고자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침례교단에서 은퇴한 원로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권지성은 은퇴의 단계에 따른 시간 순서를 반영하여, 은퇴 과정, 은퇴 후 초기적응, 은퇴 후 생활, 미래 전망 등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은퇴목회자들의 생활경험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제시해주었다. 권지성의 연구는 은퇴목회자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는 그 접근법에 있어 차별성이 있어 학술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7명의 목사들이 모두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원로목사’들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교회 및 경제적인 지원을 경험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됐기에 보편적인 은퇴목회자들과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상황과 맥락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더욱이 특정 교단 소속의 목회자들만을 다루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¹⁰

9 박근수, “은퇴목회자의 은퇴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2(2013), 127-149.

10 권지성, “침례교 은퇴목회자의 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복음과 실천』 60(1)(2017), 433-463.

전술한 은퇴목회자들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교회와 학계의 접근은 심리적인 차원, 은급재단과 관련된 경제적인 차원, 업적 및 인물 중심의 차원에 집중하여 수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분석적인 차원에서도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심층적인 문화와 맥락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동향은 은퇴목회자에 대한 한국교회와 학계의 관심이 매우 지역적인 수준에서만 수행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즉, 한국교회 내 은퇴목회자의 역할과 가치가 중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분석하였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회 현장에 기반 한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에 대한 생생한 아래로 부터의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교회 내 은퇴목회자들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은퇴목회자들과 관련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실제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은퇴목회자들의 삶과 관련된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심층면담, FGI(Focus Group Interview), 현장자료 등을 통하여 수집을 시도하였으며, 특별히 심층면담, FGI를 통하여 주요 연구대상자들인 은퇴한 목회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심층면담 가운데 편안한 분위기 연출하여, 주제와 관련된 심층적인 내용을 듣고자 하였으며, 은퇴목회자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심연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 구성 및 개발이 요청되었으며, 해당 과정은 본 연구의 면담가이드를 통해 구현되었다. 구체적으로 1) 은퇴에 대한 개인적 생각 및 경험 영역, 2) 은퇴의 현실 영역, 3) 은퇴와 소명 및 신앙 영역, 4) 은퇴와 교회 영역, 5) 은퇴와 가족 영역, 6) 은퇴 준비 영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따른 질문들이

이루어졌다. FGI는 관련 주제에 대한 핵심관계자들의 소그룹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은퇴목회자, 목회자의 아내, 소형교회 성도 등이 포함되어 함께 수행됐다. 현장에서 수집된 현장자료들은 은퇴목회자들의 딜레마와 관련된 문서 또는 목회 자료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특징과 은퇴 후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현장자료와 내용분석의 대상으로는 은퇴 후의 활동 관련 자료(책자, 서술시집 및 작품 등), 개인 문서, 사진, 기타 목회 당시 자료 등 연구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사항

연구대상자로서 은퇴목회자들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기준의 경우 연구자가 소속된 교단(고신)과 산하 교회, 그리고 초교파적인 교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천이 이루어졌다. 은퇴목회자의 삶과 관련된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추천의 기준은 현재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로서 직/간접적으로 해당 특성과 관련된 목회자, 사역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형교회 사역 경험자, 소형교회 은퇴목회자, 소형교회 직분자, 소형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지역별 소형교회’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더불어 소형교회의 은퇴준비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형교회 및 개척교회 목회자와 아내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퇴목회자 및 현장목회자 남성 10명, 여성 5명, 소형교회 구성원 5명(장로, 권사, 집사) 총 2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됐다. 특별히 교회 특성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모두를 고려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소형교회 구성원(장로, 권사, 집사)은 50~60대 자영업 및 전업주부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대상자인 은퇴목회자들은 취약한 연구대상자(노인)에 해당되기에 연구과정에서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 수행하고자 하였다. 1)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면담 수행: 청력, 시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질문과 말의 속도를 조절하여 수행하였다. ②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면담 수행: 개별화를 전제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면담을 수행하였다. ③ 연구면담시간: 면담시간을 장시간 수행하지 않고, 참여자가 무리하지 않는 시간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특별히 연구기간 중 COVID-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심층면담과 FGI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면담 보조활동으로서 전화를 통한 비대면 면담도 수행되었다.

해당 사항 모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기 위함이었으며, 연구의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침과 권고 사항을 준행하였다(승인번호 KU IRB 2019-0064).

3. 자료 분석 방법 및 글쓰기

본 연구에서는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CAQDAS: Computer-Aid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파랑새 2.0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파랑새 2.0의 특징은 웹 체제를 기반으로 무선인터넷이 허락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질적 연구 작업이 가능한 현장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료의 전사에서부터 글쓰기 작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체제를 제안하고 있다.¹¹⁾ 또한 파랑새 2.0은 질적연구 과정에서 도출되는 주제 관련 개념과 연구자의 현장성 짙은 통찰(insight)들 분석적 메모 작업을 통해서도 면밀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1] CAQDAS를 활용한 소형교회 은퇴목회자 자료 분석 과정

11 이현철, 「산간벽지 소재 교회의 딜레마에 대한 질적연구」, 『질적탐구』 4(3)(2018), 278.

본 연구에서의 자료 코딩 방법은 전체적 코딩(holistic coding)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전체적 코딩의 특징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문단에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이는 현상과 관련된 맥락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코딩 전략이다.¹²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의미와 현상이 제시하는 주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간 활용과 일상생활 측면, 경제적인 측면, 목사의 정체성 측면, 은퇴준비의 측면, 교회와의 관계 측면’들을 핵심적인 딜레마와 이슈들로 도출할 수 있었으며, 각 주제는 하위의 코드들의 종합적인 개념과 가치로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 활용과 무묘한 일상생활: “시간에 대한 문제가 힘들어요”’의 경우 전체적인 코드로서 생성된 소형교회 은퇴목회자와 아내들의 ‘반복되는 하루 일과, 성경 읽기, TV 시청, 등산, 취미 활동, 여행, 소소한 일상, 단순함이 주는 피곤함’ 등의 상황 관련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문단에 주어진 코드들의 상위 개념이며, 이를 통해서 ‘시간 활용과 무묘한 일상생활’이라는 핵심적인 주제가 구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체인 코딩 과정을 통해서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과 딜레마들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글쓰기는 도출된 ‘주제 관련 도입 → 선행자료 및 이슈화된 자료 제시 → 연구참여자의 인용문 제시 → 연구참여자의 인식 제시 → 연구자의 해석 제시’의 과정으로 수행하였으며,¹³ 이는 연구 관련 주제의 의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한 인식과 목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주제와 연계된 대표적인 내용들은 연구참여자의 인용문을 통하여 제공되었다.

4. 타당성 확보 및 개선 노력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는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자료 분석

12 오영범 · 이현철 · 정상원, 『질적자료분석』(경기: 아카데미프레스, 2016), 73.

13 이현철, “산간벽지 소재 교회의 딜레마에 대한 질적연구”, 281.

방법으로서 CAQDAS의 활용이다. 이는 기존 질적자료분석 과정이 지닌 타당성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며, 방대한 자료의 관리를 위한 체계성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접근이기 분석과정의 타당성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둘째, 본 연구방법론 전문가로부터 자료 분석과정에 대한 의견 및 피드백을 수렴하면서 연구를 수행해나갔다. 해당 전문가들은 현직 교수 1인, 전문 연구자 2인(국립대학 외래교수)이었으며, 이 중 1인의 경우 박사학위를 가진 소형교회 현장목회자이기도 하다. 이들의 경우 자료 분석과 코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의 오류를 검토 및 수정해주는 임무를 수행해주었다. 셋째, 현장목회자들과의 공개 포럼 개최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통해 구성된 기초적인 사항들을 2020년 7월 20일(월) 포럼의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멤버체크(member check)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전문가 및 현장목회자들에게 분석과정과 초안 형태의 연구결과들을 공개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 2인의 지정토론을 수행하고, 소형교회(농어촌교회 등) 현장 목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의 경우 COVID-19 펜데믹의 상황 속에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명단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되었다.

IV. 연구 결과: 소형교회 은퇴목회자의 삶과 딜레마

1. 시간 활용과 무료한 일상생활: “시간에 대한 문제가 힘들어요”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삶은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그 자체가 사역과 관련된 활동으로 가득하다. 특별히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부교역자 없이 모든 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동시에 교회의 안정과 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당 목회자의 삶이 물리적인 시간 자체로도 바쁜 일상을 보낼 뿐만 아니라, 개인 내면적으로도 안정감 있는 여유를 갖기가 힘든 상황임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즉, 교회사역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목회자가 지녀야 할 책임감을 안은 채 탈진에 이르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일상적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ye-Jeong Cho는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성장으로 인한 좌절과 탈진현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¹⁴ 하지만 은퇴 이후의 목회자의 삶은 은퇴 전의 바쁜 일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은 은퇴 전과 후의 일상적 삶의 변화에 큰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사실 시골 목회하고 난 이후에 은퇴하고 나니깐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반 사회 사람들이 퇴직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준비된 물질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나간 시간에 대한 문제가 힘들어요.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분들이 있을텐데.....일상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냐는 겁니다.....점심 먹고 오후에 운동 좀 하고, 호수가 있어서 40분정도 걷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2020년 1월 15일(수) 포커스 그룹 면담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시간 활용에 있음을 고백해주고 있었다. 자신이 시간 활용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허락된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이는 해당 연구참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 은퇴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딜레마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신체 및 사회적인 활동은 상당히 제약돼 있는 상황이었다. 신체적으로는 고령화 단계에 이르러 역동적인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여전히 목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평신도 은퇴자들과 같이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도전을 수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¹⁴ Hye-Jeong Cho,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mall Church Pastors and their Christian Education Ministry", 「기독교교육정보」51(2016), 232-33.

2.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내가 수급자로 있으니깐, 정부가 39만원 줍니다”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인 상황은 은퇴 전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압박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도시지역 혹은 산간벽지 소재의 교회이든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¹⁵ 연구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이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압박의 수준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경향이였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일선 목회 현장에서 은퇴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있었던 보조와 목회 활동에 의한 작은 사례도 끊어져 버림으로 인해 더욱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

연구자 : 목사님 그럼, 여기가 보증금 50만원, 월 15만원인데, 그 경제는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연구참여자 : 내가 수급자로 있으니깐, 정부가 39만원 줍니다. 39만원하고, 장애 3급이니깐, 이제 4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도시 목회를 한 사람들은 몇 년을 했던 조금은 낮고, 도시라고 해도 개척을 해서 어렵게 있다가 은퇴를 했던지, 농어촌에 몇 명씩 열 몇 명 이런데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정말 힘들어. 내가 살아온 것이 어쩌면 우리 ****(교단)**의 정 코스인지 몰라.....

2020년 1월 10일(금) 심층면담

2020년 3월 현재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시에 따르면 법제적으로 시급 8,590원, 일급(8시간 기준) 68,720원, 월급(209시간 기준) 1,795,310원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기능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임금과 경제적

15 이현철, “산간벽지 소재 교회의 딜레마에 대한 질적연구”, 285, 이신철·이현철, “한국사회 내 미조직 및 개척교회의 딜레마에 관한 질적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교신)의 도시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25(2013), 232-33.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⁶ 해당 기준에 준하여 은퇴목회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소형교회 은퇴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아내는 경제적인 최소한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과정에 참여한 대부분의 은퇴목회자들과 목회자의 아내들은 해당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었다. 대부분 목회자들에게 있어 소득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택 소유의 여부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었으며, 자택을 소유하지 못한 은퇴목회자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자립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은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각 교단에서는 다양한 은퇴준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소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 해당 준비 과정마저도 매우 힘든 모습으로 확인되었는데, 그것은 은퇴 전 사역 당시에도 이미 경제적인 한계로 인해 체계적인 은퇴 준비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제만을 본 연구에서는 구분하여 다음절에서 다루었다.

3. 목사의 정체성: “유지와 갈등 사이에서”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성례집례, 교인 축복,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¹⁷ 구체적으로 목사는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교인을 교육하는 일, 교인을 심방하는 일,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¹⁸ 이는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들이므로 노회의 안수로 장립을 받은 목사

16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2020년 3월 5일 검색

17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제5장 제39조(목사의 의의), 268-269.

18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제5장 제41조(목사의 직무), 270.

의 경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를 소홀하지 말고, 전심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성도의 영성 및 교회의 성장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로교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¹⁹

본 연구 과정에서 참여한 대부분의 은퇴목회자의 경우, 목사의 사명과 의미에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모양과 성격은 다르지만, 목사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 은퇴를 하였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로서의 삶에 은퇴 이후에도 충실한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로 살다가 은퇴하였다고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2019년 10월 2일(수) 심층면담

연구참여자의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사의 정체성을 발휘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장이 변화되었거나 사라졌음에서 오는 딜레마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은퇴한 목사는 자신의 삶과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목사이며, 은퇴를 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정체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퇴한 목회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는 그러한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가 은퇴 이후에 건강하게 발휘되고, 자연스럽게 은퇴 이후의 모습 속에서도 표출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일상적 삶의 활동과 교제 속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도 시사해주고 있었다. 이는 동일하게 목회자 아내들에게도 유사한 맥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은퇴하기 전에는 지역 사모님과 모임이 좋았어요. 한 번씩 모여서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여행도 가고, 사모님들과 상당히 위로가 되었고, 그런 시간이 좋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깐 제가 리드할 수 없겠더라

19 김진홍, “목회자의 참된 영성과 지성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갱신과 부흥』 23(2019), 149.

고요. 저는 시간도 많은데 그 분들은 시간이 없다보니깐 괜히 눈치도 보이고,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밥 사줄 만한 그런 것도 안되고, 현역에 있을 때 관찮았지만.....

2020년 1월 15일(수) 포커스 그룹 면담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유지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의 삶을 영위한 신실한 목회자들로서는 당연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던 상황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은퇴 이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은퇴 이후의 목사 정체성에 대한 방향성과 개념 정립은 은퇴 이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에 맞는 형편과 내용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로 인해 삶의 행위와 활동 영역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4. 체계적인 은퇴 준비의 한계와 어려움: “교회의 생존과 존폐 앞에서 나의 은퇴준비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은퇴 목사는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이며, 원로목사는 한 개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은퇴함을 의미한다.²⁰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은퇴목회자들은 ‘소형교회’의 은퇴목회자들로서 정년이 되었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한 개체 교회에서 은퇴한 이들이었으며, 그 가운데는 20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근무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소형교회에서 은퇴한 이들의 경우 세간을 떠들썩하게는 거액의 전별금이나 은퇴 이후의 보장된 삶의 모습과 상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이 보장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연구참여자는 거의 없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이들의 개인적인 상황이기보다는 소형교회로부터 은퇴한 목회자들

20 특별히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은퇴할 때에는 해당 교회에서 추대절차를 따라 고동의회에서 추대 결의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원로목사로 추대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무기간 산정은 해당 교회에서의 전 시무기간을 통산하여 이루어진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제5장 제42조(목사의 칭호), 271.

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며, 이를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앞서 언급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교회 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은 은퇴 이후에 아내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노후 대비를 위한체계적인 준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체계적인 은퇴 준비의 한계와 어려움이었으며, 그로 인한 딜레마였다.

연구참여자: 응급비를 교회에서 넣어주면 좋죠. 저도 만약 응급비를 교회에서 넣어주었다면 계속 갔겠죠.....한 달에 40,50만원, 호봉이 자꾸 늘어나니깐 한 달에 40,50만원, 우리 애가 **동에서 고시공부를 했거든요. 한 5년 공부했으니깐 거의 다 거기에 다 대주고, 우리가 시골이니깐 우리 쓰는 생활비는 얼마 안 들었었어요. 교회에서 식량 나오고 야채 나오니깐, 그러니깐 볼 때 도시 교회 목사님들은 응급비 넣는게 상당히 힘들겠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교회에서 넣어줘서 괜찮지만, 어제 만난 사모님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2020년 1월 15일(수) 포커스 그룹 면담

연구참여자 : 솔직히 말하면 작은 소형교회는 답은 없죠. 어떤 대안도 없고, 사실은 이제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도 하고 개척교회 있는 입장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소형교회, 시골 교회이면 열댓명, 열명 미만 이런 교회가 대부분인데, 더군다나 그런 규모의 재정이 없을 상황이 많고, 주로 또 노인계층이고, 그러다보면 재정적으로 수입원이 없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든지,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은퇴를 하게 되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도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분이 은퇴 목사님에게 마음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보다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해주는 게 대부분이라 볼 수 있죠.....우리 교회는 개척을 하면서, 80퍼센트가 부채인데.....답이 없는 거예요.

2020년 1월 29일(수) 포커스 그룹 면담

연구참여자의 인용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현재의 미자립교회로서 소형교회 사역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퇴 이후의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은퇴 자금의 준비 혹은 은급재단가입과 같은 형태의 내용도 매월 납입 금액 자체의 부담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형교회에서 사역하고 은퇴하는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소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목회자 자신과 가족에게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활용 및 적용되어야 할 유·무형적인 요소들이 교회 의 생존과 사역의 유지를 위하여 활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소형교회 목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퇴준비와 같은 내용이 교회의 존폐(存廢)를 고민해야 할 당장의 상황 앞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것이며, 목회자로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5. 은퇴 후 출석 교회와의 관계성: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않고, 지혜롭게 출석해야지요”

목회자로서의 삶 속에서 매주일의 교회 출석과 예배 참석은 일상적이라 고민의 여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평생을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회와 관련된 활동은 행복이요, 기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은퇴목회자로서의 삶 속에서 매 주일의 교회 출석과 예배 참석은 고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측면과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구분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연구참여자의 인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은퇴하고 그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당장 교회를 가야하는데, 이거부터가 피부적으로 와 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여기서 5분 거리의 **교회인데, 은퇴할 때 교회에서 원로라는 칭호를 해주었

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교회에 나올 때에 당분간 이 교회는 출석 안한다.....
그 문제가 내가 평생을.....27년을 목회를 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2020년 1월 16일(목) 심충면담

개인적인 차원의 경우 은퇴 이후에 목사로서 편하게 주일 예배를 참석할 곳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참여자의 고백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은퇴 이후 맞이한 첫 주일의 상황은 은퇴 준비 과정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은퇴하였으니 기존에 사역하였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이웃 교회에 참석하고자 하니 여러 관계적인 측면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목회자의 경우 개인적인 측면의 맥락과 더불어 교회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출석교회와의 관계성을 고민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교회는 장로님들이 저희를 다시 그냥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장로님들이) 후임 목사님보고 '우리는 원로 목사님 다시 모신다'고.....원래는 올 1월(2020년 1월)부터 가려고 했어요. 교회도 가깝고, 차타고 먼 곳까지 25분 걸리니깐.....우리도 사실은 고민은 되더라고요. 후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떨까?.....지금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안 가고 있는데.....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갈 곳이 없으니깐.

2020년 1월 15일(수) 포커스 그룹 면담

연구참여자 :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의도적으로 본의 아니게, 자꾸 담임 목사를 잘 챙겨라 하는 것도 역효과가 나타나죠..... 한, 두 마디만 해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그런 면에서 목회자한테 힘을 줄 수 있죠. 도움을 줄 수 있고.

2020년 1월 29일(수) 포커스 그룹 면담

은퇴목회자로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이 해당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교역자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며, 해당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터도 지나치게 관심과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별히 은퇴목회자들은 출석하는 교회의 일반성도들이 가지는 인식과 행해지는 작은 언급들이 해당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부담과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눈치를 보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출석교회의 담임 목사와의 관계성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데, 은퇴목회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출석 교회에서의 상황들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은 은퇴자로서 자신이 사역하였던 교회와의 관계성 정립에서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다. 즉, 은퇴 이후에 자신이 사역하였던 교회와의 관계성 정립에 있어서도 후임 목회자 및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따라 해당 교회와 연관된 활동과 인식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삶과 딜레마를 현장 중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해당 과정을 바탕으로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간 활용과 일상생활 측면, 경제적인 측면, 목사의 정체성 측면, 은퇴준비의 측면, 교회와의 관계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항들은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상적인 삶의 문제와 딜레마들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들이 강력하게 요청됨을 예상할 수 있다. 전술한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급재단 혹은 관련 제도 등의 가입과 월납입금액 지원 방안이 요청된다.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경제적 측면은 은퇴목회자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별히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들의 경우 교회 은퇴 후 생계를 위한 일정한 수입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은퇴 이후의 삶의 질적인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었다. 이에

은급재단과 교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운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과 월납입 사항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의 유지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해당 제도의 월납입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부닥쳐있기에 체계적인 은퇴준비의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은퇴목회자들의 사택 준비와 관련된 방안이 요청된다.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택 문제인데, 소형 은퇴목회자들은 은퇴 시점에 이르러서 해당 사항을 준비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도 주고 있었다. 소형교회에서 갑작스러운 사택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준비과정으로서 사택 준비를 위한 목적현금을 교회가 준비하고, 이를 위해 5년, 10년, 15년 단위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나간다면 이와 관련한 갑작스러운 예산 준비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와 그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삶의 체계(사택 및 경제적인 활동 포함)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교계와 교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은퇴 이후의 삶과 관련된 체계적인 준비 방안이 요청된다. 은퇴목회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의 준비 이외에도 은퇴 이후 사역 및 활동과 관련된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갑작스럽게 허락된 은퇴자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소형 목회자들을 위한 은퇴 전 체계적인 준비와 관련된 교계의 다양한 프로그램, 세미나, 포럼 등의 활동들이 요청되며, 은퇴와 관련된 이슈가 더 이상 특정한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부터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요소라는 것에 대한 교계의 인식 변화와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은퇴 이후의 활동과 사역을 위한 장이 요청된다. 은퇴목회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며, 시간 활용에서도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에 반하는 활동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은퇴 이후에도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필요로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 혹은 교회 내 상황으로 인해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교단 내 교회들을 연결하여 은퇴목회자들을 활용한 설교 지원이나 성례 집행 등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노회와 시찰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사업이며, 도서·산간벽지 교회의 어려움도 덜어주며, 은퇴목회자들의 은퇴 사역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퇴목회자들이 가진 노하우와 역량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교회들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은퇴목회자 및 목회자 아내들 간의 네트워크와 활동이 요청된다. 은퇴목회자들과 아내들은 여전히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교회 은퇴 후 사역의 장이 사라지고, 후배들과 교회를 향한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들을 ‘지우는’ 과정을 보내고 있었다. 이에 은퇴목회자와 아내들을 위한 그들 간의 소통과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요청된다. 실제로 은퇴목회자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존재하고 있지만, 단순히 예배적인 차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교계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들이 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형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이 요청된다.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은 단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소형교회와 관련된 현장 목회 상황과 패러다임을 고려하며 추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단 및 신학교의 실천신학적 접근과 분석의 체계성을 보완하고, 실제로 소형교회 현장 목회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자들과 연구사업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단 산하에 전문적인 사역을 지원하는 상설 기구 혹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이며, 신학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참여와 관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환. “목회자의 은급제도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측) 목회자를 중심으로.” 천안: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권지성. “침례교 은퇴목회자의 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복음과 실천』 60(1)(2017), 433-463.
- 김진홍. “목회자의 참된 영성과 지성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갱신과 부흥』 23(2019), 127-154.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1.
- 박근수. “은퇴목회자의 은퇴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2(2013), 127-149.
- 변은미. “은퇴목회자 노후생활에 관한 연구: 신앙, 여가, 경제,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천안: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서정국·김미경. “은퇴목사의 갈등관리유형과 삶의 만족도가 갈등감소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1(2013), 92-120.
- 손의성. “은퇴목회자의 우울과 고독감과 대처자원 관계 연구.” 『교회사회사업』 22(2013), 7-42.
- 오영범·이현철·정상원. 『질적자료분석』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2016.
- 이소정.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16.6). 70-82.
- 이신철·이현철. “한국사회 내 미조직 및 개척교회의 딜레마에 관한 질적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의 도시지역교회를 중심으로.” 『개혁논총』25(2013), 215-244.
- 이현철. “산간벽지 소재 교회의 딜레마에 대한 질적연구.” 『질적탐구』 4(3)(2018), 269-296.
- Hye-Jeong Cho.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mall Church Pastors and their Christian Education Ministry.” 『기독교교육정보』 51(2016), 219-241.
-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독일보> 2018년 2월 10일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 (접속일: 2021년 2월 23일 검색).

대한민국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접속일:

2020년 3월 5일 검색).

[Abstract]

**Qualitative Study on Life and Dilemma of
Retired Pastors in Small Churches**

Hyun Chul Lee

(Kos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Christia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find effective ways of support for retired pastors in small churches of South Korea, particularly, focusing on their life and dilemma in ministrie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selected from retired pastors of several local churches and leaders of small church who in charge of small sized church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based on how well they represented the range of experiences across the sample.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was performed through CAQDAS(Computer-Aid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and through this, the validity of the overall study was secured. In addition, the coding strategy was achieved through holistic coding, and efforts were made to derive the comprehensive context and meaning of retired pastors through qualitative data. Through qualitative approaches, I have discovered five dimensions of the life and dilemma on retired pastors in small churches: 1) difficulty and boredom in using time in daily life, 2) extreme economic difficulties, 3) identity conflict as a pastor, 4)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of preparing for retirement, 5) relationship with the attending church after retirement. The five themes related to the lives and dilemmas of retired pastors derived through qualitative data analysis give several implications for systematic pastoral

support and preparation of denominations and local churches.

Key Words: Korean churches, small churches, retired pastors, life, dilemma, practical theology

